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0월 16일(주일) 제1413호

한계 없는 선교, 함께하는 후원

CGNTV, 10월 22~23일 정기후원 약정행사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10월 22일(토)과 23일(일) 한다. '한계 없는 선교, 함께하는 후원'을 주제로 진행되는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날 CGNTV 임직원들은 서빙고(1, 2부)와 양재(3, 4부) 온누리교회에서 특순을 하고, 양순이(갯튼 캐릭터)와 사진찍기 행사 등이 열린다. CGNTV와 함께하는 선교사와 해외 지사의 선교 열전이 담긴 특집 다큐멘터리는 11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CGNTV가 한계 없는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함께하는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 7면>.

한편, CGNTV가 11월 6일(일)까지 '2022 풍당 콘텐츠 아이디어 공



모전'을 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11월 6일까지 지원서, 목회자 추천서, PPT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

분야는 영상 콘텐츠와 웹툰, 웹 소설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CGNT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후원_02-796-2243
공모전_02-3275-9322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11월 6일까지 명동대성당

지난 9월 28일(수)부터 시작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40 days for life)' 캠페인이 11월 6일(주일)까지 명동대성당 들머리 앞에서 이어진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기도 봉사자가 태아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팻말)을 들고, 일자별 기도문을 낭독하며 평화적으로 침묵기도 시위하는 캠페인이다.

온누리교회는 수요일과 토요일 기도 봉사를 담당한다. 기도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313

온누리세계관 학교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

11월 1~29일 매주 화 20시

온누리세계관학교(OWA; Onnuri Worldview Academy)에서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11월 1일 조준목 목사 '세계관이란', 8일 류현모 교수(서울대) '세계관 비교', 15일 정운오 장로(서울대 명예교수) '세계관과 소비주의', 22일 신무환 장로(연세대 교수) '세계관과 과학주의', 29일 최도성 장로(한동대 총장)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문의: 02-3215-3637

2022 엔젤트리 대상자 모집

10월 18일부터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2022 엔젤트리'가 시작된다. 2022 엔젤트리 대상자를 모집한다.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와 목회지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선정해서 이웃의 주소, 사연, 개인정보 등을 전달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19일부터 온누리교회 로비에 게시될 예정이다.

문의: 02-3214-3434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새벽부흥집회 종료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새벽부흥집회가 그 막을 내렸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참 영적 군사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했다.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새벽부흥집회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는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과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새벽부흥집회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지난 14일(금)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새벽부흥집회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최성원 집사(이촌공동체)는 “이번 새벽부흥집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먹고 마신 기회였다”면서 “차별 금지법 등 악법 제정 움직임을 담대하게 저지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새벽부흥집회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현장.

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본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조항진 장로(한강공동체, 장로 중보기도회)는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신발을 벗고 온전히 순종하는 종으로 헌신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고 고백했다.

이봉길 순장(경기A공동체)은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했다<메시지 요약 4-5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맛있는 말씀 해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마 13:31~32, 마 17:20, 눅 17:6)

예수님은 겨자를 비유로 두 번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겨자씨를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마 13:31~32).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심어 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말씀하셨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앞으로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겨자나무가 자라듯이 점점 성장하는 거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자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다. 예수님이 아이를 점령하고 있던 귀신을 꾸짖으시니 곧 떠나 버렸다.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

고 말씀하셨다(마 17:20). 누가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뿔나 무더러 뿌리가 뿔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눅 17:6)고 기록하였다. 두 번째 겨자씨 비유는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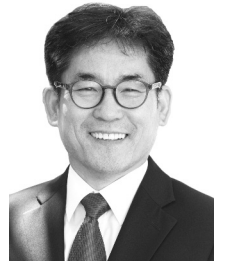
나는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겨자나무를 찾아간 적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이드는 갈릴리호수 어느 근처로 우리 일행을 인도했다. 그곳에는 높이가 2미터가 넘는 겨자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손바닥에 펼쳐 놓은 겨자씨 한 알은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다. 이렇게 작은 씨앗이 어떻게 이처럼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 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어떻게 산을 옮길 만한 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수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겨자나무와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신 것으로 느껴졌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

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출애굽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시험 앞에서 넘어졌던 것은 믿음 부족 현상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 훈련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믿음 훈련의 과정이었다. 믿음으로 출애굽하고, 믿음으로 광야를 거치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여정이야 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셨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 주실 때마다 치료비를 받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다.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때마다 놀랍게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 제자들을 상대로 행하신 훈련의 목표도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인들이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 부족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도 믿음 부족 때문일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시험에 들게 되어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결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뿐이다. 복잡한 시대에서 자신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요셉과 유다의 삶에 감춰진 섭리

10월 17일~23일
창세기 36:1~38:30



독서포인트 1: 에서는 에돔 왕국의 조상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에돔 왕국의 기원을 보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자.

▶36장은 에서의 족보로부터 시작해 에돔 왕국의 기원과 발전을 기록한다. 야곱은 가나안에, 에서는 세일에 거주한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소유를 풍부하게 하셔서 에서를 약속의 계보를 잇는 야곱과 분리시킨다. 에서와 그의 후손은 칼을 의지해 사는 자들이다(27:40). 에서 후손은 이스라엘보다 몇 세대 앞서 왕국을 세운다.

독서포인트 2: 일부다처로 인해 야곱 가정의 관계는 복잡하다. 게다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 형제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는 요셉 가족과 더불어 멀리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꿈이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묵상하자.

▶야곱은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한다. 그가 요셉에게 입힌 특별한 옷은 사랑과 증오의 상징이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리는데,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고자질로 형들과 요셉 사이가 점점 벌어진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다.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 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이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다. 꿈 때문에 형들은 더욱 분노한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은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난다.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 버린다. 그리고 잠시 후 애굽(이집트)으로 내려가는 상인 무리에게 팔아 버린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솜염소 피에 적서 가져가고, 야곱은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며 슬피 운다.

독서포인트 3: 요셉을 종으로 판 후 형제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삶을 산다. 유다가 정에는 죽음과 슬픔이 떠나지 않는다. 유다는 힘겨운 시련을 통과하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간다. 구속사에 중요한 인물인 유다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 묵상하자.

▶38장의 중심인물은 ‘유다’이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 엘(에르), 오난, 셀라를 낳는다. 장자 엘의 아내로 다말을 데려왔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결국 죽고 만다. 유다는 형사취수(兄死娶嫂) 관습에 따라 둘째 오난을 다말에게 들여보낸다.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죽고 만다. 이에 유

다는 막내 셀라도 죽을까 염려해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한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얼마 후 유다의 아내마저 죽는다. 두 아들과 아내의 죽음까지 유다가 정에 환난이 끊이지 않는다. 애도 기간이 끝난 후 유다는 담나에서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다. 다말은 임신이 드러나자 담보물인 ‘도장, 끈, 지팡이’를 유다에게 내보인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시인한다. 과정은 수치스럽지만,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다말을 통해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얻는다. 다말과 베레스는 구속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은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다(마 1:3~16).

적용을 위한 가이드

▶어느 곳이든 ‘편애’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를 낳는다. 공동체 구성원 간에 긍정적인 사랑을 나누도록 힘쓰자. 내가 편애하는 성향이 있다면 공평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간에 미움과 증오로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서로 용납하기 위해 힘쓰자.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시련은 무엇인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련을 통해 각 사람을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제 믿음과 가족 전도를 위해’

저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편지를 보냅니다. 28년 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만 잘하면 남편을 쉽게 전도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때부터 드린 가족 전도를 위한 기도가 자녀 두 명 낳고, 30년 가까이 살아온 지금까지도 제 기도제목 1순위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때가 있어서 벌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도 했습니다. 제 평생의 울타리였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헛헛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제자매 없이 외동인 제가 정말 고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욱 집중하고 매달렸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는커녕 저 역시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더니 왜 또 교회에 가려고 해?”라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익명의 성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앞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래 측면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설명하면, 과거는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구원’입니다. 현재 측면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 17절까지는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칭의의 구원, 로마서 5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는 성화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미래적 측면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영화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함께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상실했고, 영광스럽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에 영광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느끼는 비참함, 자존심, 명예욕 등은 모두 영광에 대한 굶주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인간만이 비참함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며, 명예욕을 추구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경쟁을 통해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원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실패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참함을 느낍니다. 왜 인간은 비참함을 느낄까요? 무엇인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비참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파스칼은 “인간이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곧 위대한 존재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회복할 수 있는데, 인간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복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욕이 되고, 비참함, 자존감의 상실, 열등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음을 알고,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믿고, 깨닫고, 체험한다면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에 목마른 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끝이자 절정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구원에서 영화롭게 되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의 상태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광에 이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간 것이고,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소망으로 승리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24절).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은 ‘현재의 고난은’으로 시작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18절).

여기서 ‘현재’는 시점이 아니라 ‘이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며,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앞으로’라는 말은 이 세대가 끝난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세대는 고난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영광에 이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성도로 살면서 받는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

아야 하는 어떤 희생이나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취합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가 서로 다룰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다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열이 있었지만, 그 분열의 이유는 배교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허락해야 한다는 다름이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의 다름은 없었습니다. 이 시기 교회의 많은 위기는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의 여정을 함께 겪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있어서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소망 가운데 있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 세대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고난이 사라지고, 이 세대 가운데서 상황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전에는 세상은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교육 기관이 많아지고, 경제가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더 선택될 것이고, 훌륭해질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사에 대한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고난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죄와 고통과 갈등과 전쟁과 지구에 요동치는 지진과 수많은 자연재해와 악들이 만연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대가 짐승들로 비유할 수 있는 원수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고, 고난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갈수록 악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시대마다 매우 교활하고 거짓된 사상과 세계관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서는 성을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성으로 정의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교묘한 사상과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대는 갈수록 교활해지고,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소수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주변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센 무신론의 물결이 강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고난 속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입니다. 고난의 세대에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소망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생명의 열매 맺는 탄식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19-21절).

피조물은 영어로 ‘크리처(creature)’입니다. 그런데 ‘피조세계(creation)’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세계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한다’는 것은 강렬하게 기대하며 얼굴을 앞에 내밀고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피조세계를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고대합니까? 자신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긴밀하고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세계가 영광스럽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피조세계와 하나님 자녀들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피조세계가 탄식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있는 것,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인간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타락한 직후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은 흙으로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피조세계 전반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는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과 보이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인 것처럼,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전반적인 저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13면에 계속>



설교: 이재훈 목사

10월 10일 (월)

“담대하라” 여호수아 1:1~9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과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발꿈치를 잡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움켜쥐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야곱의 인생과 대조적으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 땅을 주시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네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될 것이다”(수 1:6~7).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키고,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 즉, 보이는 싸움에서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담대함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싸움을 할 때 더 많은 군사와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함,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담대한 확신입니다. 성정체성, 성적자기결정권, 낙태 찬성 등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거나 동조한다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신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대한 담대함이 없다면 우리는 싸움에서 집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맡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백성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보이는 전쟁에서 필히 지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전쟁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담대한 행동입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담대한 확신으로부터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확신으로 출발하면 우리의 연합함이 강함이 될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능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11일 (화)

“정결하라” 여호수아 3:1~7

참된 성도는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영적 군사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약속된 승리를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높이며,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 참여하는 용사들에게 요청한 것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요청하는 자세는 ‘정결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요단 강 앞에 있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 강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을 들을 기회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백성임을 깨달을 기회입니다. “정결하라”는 명령이 물리적인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어떤 성격 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싸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 강을 건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 강을 건널 때는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홍해는 뒤에서 적들이 쫓아오고 있었다면, 요단 강은 앞에 있는 대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앞서 요단 강을 밟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서갈 때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승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잘 따르나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산으로 오셨고, 장막을 치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앞서 행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선 거리가 2천 규빗, 약 600미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행해보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정결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길 앞에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승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정결함’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는 요단 강 같은 장벽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정결함으로 추구할 때 요단 강은 갈라지고 대적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정결함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10월 12일 (수)

“순종하라” 여호수아 5:13~15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인생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인지 둘 중 하나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은 모든 것을 스스로 짊어지고, 책임지고, 결정합니다.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정결하라’ 에 이어서 오늘은 ‘순종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든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다가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할 거라는 약속을 주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수 1:8)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재빨리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달라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달라고 청하는 사람입니다.

14절 후반 말씀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군사는 군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무슨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때마다 물어야 합

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종의 태도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 것은 당시 종이 주인 앞에서 완전한 헌신과 충성을 서약할 때 했던 행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서 있는 위치만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을 벗고 여호와와의 군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가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며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신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와의 군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헌신하고 결단하십시오.

10월 13일 (목)

“도전하라” 여호수아 14:6~15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 군사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이 요구됩니다. 담대하게, 정결하게 순종하는 영적 군사는 도전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전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믿음으로 순종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헤브론 산지를 자신들의 지파에게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요청을 하면서 45년 전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살펴본 12명 중에서 10명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강대한 신체와 생김새를 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속단하고 불신앙 보고를 했고, 그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며 원망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때 믿음의 편에 섰던 두 사람(여호수아, 갈

렙) 외에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불신앙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믿음의 두 사람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정복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헌신하겠다는 갈렙의 도전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 군사의 가장 중요한 모범입니다. 그의 나이 85세에 헌신의 도전을 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사의 중요한 모범입니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네가 마음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7~9절).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13~14절).

“마음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다”가 갈렙 신앙의 비결입니다. 갈렙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갈렙이 바라본 것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따르되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갈렙이었기에 희생의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37년 역사는 그냥 쓰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갈렙이 되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모든 이들이 꺼리는 일에 헌신하는 영적 전사들이 되십시오. 갈렙과 같은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10월 14일 (금)

“선택하라” 여호수아 24:14~25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기는 장입니다. 신명기 31장과 32장 모세의 유언과 많이 닮았습니다. 모세는 앞서가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는 주제로 새벽부흥집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삶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행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람이 우상을 파문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세계에서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연약을 체결합니다.

14절부터는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승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선택을 해주어야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인생으로 스스로 택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말씀이 1장이 아니라 2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나가 싸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섬리는 우리의 선택과 맞물려 갑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선포하자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고백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선언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다시금 다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따르는 대가, 여호와를 따르지 않을 때의 대가를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까?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축복 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며 서약합니다. 이것이 세겜에서의 언약 체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해 싸울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도와드린다고 생각하는 섬김이 아니라 나의 본분이며 기쁨이며 큰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차세대 추수감사주일 '어려운 이웃 돕기'

“감사를 이웃과 나눴어요!”

‘푸드뱅크’와 ‘신망원’에 식품 및 생필품 후원

친구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추수감사절은 곡식 등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날을 맞아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꿈이자라는땅(이하 꿈땅) 친구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고 해요. 컵라면, 핫반, 통조림 등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품들과 생필품 3,500여 개를 모아 ‘푸드뱅크’(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와 ‘신망원(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대요. 친구들이 기부한 물품은 어려운 이웃 700가정과 신망원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고 해요. 이번 나눔에 참여한 친구들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오서현(1학년), 박채빈(1학년), 이한나(2학년), 현윤호(4학년) 학생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웃들을 위한 물품을 가지고 왔을까요? 친구들이 가져온 물품은 무엇일까요?

서현: 저는 라면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채빈: 저도 라면을 준비했어요. 제가 제일



서빙고와 양재 꿈땅 학생들이 식품과 생필품 등을 모아 ‘푸드뱅크’와 ‘신망원’에 후원했다.

좋아하는 라면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예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나: 저는 통조림이랑 햄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란 가족들에게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윤호: 저는 라면 24개짜리 한 상자를 가져왔어요. 별거 아니지만 쌀쌀해진 날씨에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친구들이 후원한 물품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서현, 채빈, 한나, 윤호 학생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현: 이웃들이 제가 드린 라면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채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서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이웃들이 맛있게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나: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전달받은 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윤호: 제가 드린 라면이 24개니까 이웃 24명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또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더 큰 나눔을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이웃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

서현: 제가 드린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채빈: 날씨가 추운데 모두 힘내세요! 예수님

이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나: 제가 드린 선물은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커요. 그 사랑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윤호: 제가 아직 어려서 큰 것을 후원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음식, 더 큰 나눔을 할게요!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쁜 일이 가득하기를 기도할게요!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31. 지혜로운 사과



차세대 입교 간증



김준형 학생
(남양주온누리교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교하게 된 김준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에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아는 친구들도 있었고, 분위기가 주는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교회에서 따분함을 느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배는 앉아서 시간을 보낼 뿐이었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때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일상의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시계만 보고, 졸기도 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배제됐고, 온라인예배도 한 번만 버티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중등부에 올라오면서부터입니다. 중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마음으로 믿고, 믿음대로 살기로!

을 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느꼈습니다. 맨날 똑같은 교회 생활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세례 및 입교 광고를 접했습니다. ‘입교’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교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저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입교 교육에서 제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마음입니다. 또 입교 교육에서 제 귀에 계속 맴돈 단어가 ‘회개’였습니다. 저는 회개의 의미를 잘못을 고백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삶의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회개는 행동의 개선이었지만,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전환이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변한다는 것이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가려진 그림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입교 과정을 거치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헌금을 낼 때 감사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외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제

삶에서 예수님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같았던 예수님이 제 삶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 어떤 부분도 하나님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입교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먼저 입교를 권유하신 부모님과 교육해주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저는 예수님을 껌데기로 믿어왔습니다.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믿었고,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입교 이후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앞두고

“하나님, 출연자, 성도와 함께 만드는 콘텐츠”

CGNTV가 ‘한계 없는 도전’ 할 수 있는 이유

미전도종족을 개척하는 선교사들 같다. CGNTV 임직원들 말이다.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CGNTV의 도전이 정말 귀하다. 누가 봐도 적은 임금, 짠내나는 열악한 제작환경이지만 CGNTV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한계가 없는 도전을 이어간다. 그 결실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세상에 새 지평을 열고, 건강한 복음을 공급하고 있다. CGNTV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한계 없는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제작진에게 들었다. CGNTV 제작진은 “하나님, 출연자, 성도와 함께 만드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CGNTV의 역사는 끝없는 도전의 역사다. CGNTV가 걸어온 길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CGNTV 개국 초창기였다. 하용조 목사가 “CGNTV 콘텐츠를 24시간 송출하라”는 미션을 내렸다. 당시에는 CGNTV 자체제작 콘텐츠가 없었는데 말이다. CGNTV 임직원들은 설교를 중심으로 24시간 방송 송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완수했다.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가 또 다른 미션을 줬다.

“24시간 송출한 것은 좋은데, CGNTV에는 한 사람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라는 미션이었다. 그 어려운 일을 CGNTV가 또 해냈다. 지금 CGNTV는 크리스천을 위한 미디어의 보고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국내 최초로 기독교 OTT ‘풍당’을 출시해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를 24시간 그것도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송출하고 있다. 그 눈부신 성장 배경에 CGNTV 임직원들의 헌신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CGNTV

CGNTV 제작진이 공통으로 하는 신앙고백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CGNTV”가 바로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콘텐츠 제작이 불가능한데, 평균 그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해내고, 전 세계에 송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의미다.

올해 서울 웹페스트 ‘베스트 리얼리티상’ 수상한 CGNTV ‘레알캠핑’의 양진아 PD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고백했다.

‘레알캠핑’은 어렵고 지루한 이미지의 <레위기>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콘텐츠다. 개그맨 정범균과 김경열 목사(말씀의집)가 캠핑하면서 <레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리얼리티 콘텐츠다. 준비 기간은 한 달, 10편 분량을 하루 만에 촬영하는 일정이라 제작 당시부터 걱정이 많았다.

“기독교 OTT ‘풍당’의 콘텐츠는 PD 단독으로 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상 PD 혼자 콘텐츠를 기획 및 준비하고, 편집과 마무리까지 해야 해서 부담이 큼니다. 그래도 ‘또 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출연자 섭외, 장소 섭외, 소품준비, 대본 구성 등을 정신없이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늘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다. 촬영 장소, 촬영감독,



CGNTV 콘텐츠 ‘바이블킹’ (좌)과 ‘오십쇼’ (우)의 제작현장.

삽화 디자이너 등 예비하신 사람들을 보내 주셨다. 그 덕분에 촬영 과정이 비교적 순조로웠고, 예상했던 일정보다 빨리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다.

“역시 CGNTV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몸소 느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연진과 함께 만드는 CGNTV 콘텐츠

잘 알다시피 CGNTV 제작비가 빠듯하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부족하다. CGNTV 출연자들에게 적당한 출연료 지급마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여기에도 헌신이 숨어 있다. CGNTV 출연자들이 섬기듯이, 봉사하듯이 정말 적은 출연료만 받고 출연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미안하고 감사한데, 제작진보다 더 열정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CGNTV ‘오십쇼’에 출연 중인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가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CGNTV ‘오십쇼’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조혜련 집사가 성경을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조혜련 집사의 친정엄마, 딸, 아들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다. CGNTV ‘오십쇼’ 김명아 PD가 조혜련 집사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려줬다.

“제작진 대본을 준비하지 않고 조혜련 집사님이 따로 강의 내용을 준비하시고, 프로그램 중간중간 나오는 개그와 폰트까지 준

비해 오십니다. CG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까지도 많은 의견을 주십니다. 현장에서 조혜련 집사님의 성경 강의를 듣는 제작진들이 ‘어떻게 재미있으면서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이 나오지?’라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CGNTV ‘오십쇼’는 길게 제작할 프로그램이 아니었는데, 조혜련 집사님의 뜨거운 열정 덕분에 ‘신약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도 하고, 제작에도 참여하는 성도들

CGNTV의 역사는 후원의 역사이기도 하다. CGNTV는 후원 100%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CGNTV 후원도 하고, 프로그램 제작에도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다. CGNTV에 필요하면 무슨 일든 두 팔 걷어붙이는 성도들이다.

올해 CGNTV가 제작한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콘텐츠 ‘바이블킹’에도 성도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성경 구절 204개로 퀴즈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었다. 참가자들의 성경 암송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CGNTV ‘바이블킹’ 김혁주 PD가 제작 당시 염려가 있었다고 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과연 얼마나 많은 참가자가 신청할까, 또 성경 204구절을 암송하는 참가자가 얼마나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암송을 탁월하게 하는 참가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히려 제작진이 참가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반성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CGNTV ‘바이블킹’ 제작진은 제작비가 부족해서 협력 업체에 할인을 부탁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몸으로 때웠다. 김주희 PD는 그 힘든 와중에 제작진에게 가장 큰 힘을 준 것이 참가자들의 간증과 시청자들과 후원자들의 성원이라고 했다.

“다니엘팀(30대)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30대면 한창 사회에 적응하는 시기일 텐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말씀암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닮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시청자들과 후원자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CGNTV에 성도들의 참여가 빛나는 콘텐츠가 하나 더 있다. 11월 선보일 예정인 ‘우리 몸으로 풍당!’이라는 차세대대를 위한 콘텐츠다. ‘우리 몸으로 풍당!’은 주인공 찬이와 송이가 인체 속을 탐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는 프로그램이다. 동화책을 시작으로 스티커북, 애니메이션, 굿즈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이 귀한 콘텐츠는 지난해 기독교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했다.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김은강 학생의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착안해 제작한 콘텐츠다. 제작비는 ‘달려라풍당 후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 제작진이 ‘우리 몸으로 풍당!’이 CGNTV 자체 제작 차세대 콘텐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우리 몸으로 풍당!’이 차세대대를 위한 동화책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믿지 않는 어린이들까지 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CGNTV 자체제작 차세대 콘텐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명화로 읽는 성경

오직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

한스 홀바인이 그린 ‘신약과 구약의 알레고리(1530년경)’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독일 화가 한스 홀바인(1497~1543년)은 16세기 독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다. 홀바인은 원래 독일출신이었지만, 일찌감치 그의 재능을 알아본 에라스무스의 추천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명성을 얻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그를 궁정화가로 임명할 정도였고, 미술사가들은 한스 홀바인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로 꼽는다.

한스 홀바인은 같은 독일인인 마틴 루터(1483~1546년)와 동시대 사람이다. 루터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생물 연도를 봐도, 그림의 내용을 봐도 한스 홀바인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죄부 판매로 상징되는 교황청과 그 산하 조직의 부패와 축재, 권력의 남용과 성직자의 문란한 사생활 등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에 대한 당시 유럽 민초들의 반발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다. 1517년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대학 교회당 정문에 게시했다는 ‘95개조 반박문’은 그 폭발의 도화선이었다. 종교개혁의 거대한 파도가 모든 유럽을 강타했을 때 등장한 개신교의 다섯 가지 표어, 즉 ‘파이브 솔라(Five Solas)’는 당시 종교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라틴어 ‘솔라(Sola)’는 ‘오직’ 혹은 ‘오로지’라는 뜻이다. 다섯 가지 솔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다. 성경(聖經)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모든 전통은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한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참된 생명력을 잃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은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셋째와 넷째가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로써 하나님은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대가를 요구받지 않는다.

다섯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다.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한다. 하물며 성직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혼동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



한스 홀바인의 ‘신약과 구약의 알레고리’ (1530년경,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 소장).

“그림을 멀리서 한번 조망해보라!
두 선지자의 모습이 중앙에 가장 크게 배치되어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의 주인공이다.

한스 홀바인이 말하는 ‘파이브 솔라’

한스 홀바인이 그린 ‘신약과 구약의 알레고리’에는 파이브 솔라의 내용이 잘 함축되어 있다. 먼저 그림을 정확하게 좌우로 나누고 있는 정중앙의 나무를 한번 보자. 원래 땅속깊이 뿌리를 박고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는 땅과 하늘, 즉 인간 세상과 하늘나라를 연결해주는 고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그림에서처럼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잎이 떨어진 왼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초록이 무성한 오른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한스 홀바인은 구도를 잡을 때부터 좌우를 그리스도의 부재와 임재, 구약과 신약의 대비를 명확하게 하고 들어갔다.

왼쪽 위에는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율법(Lex)의 서판을 받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반면 오른쪽 위에는 기도하는 마리아에게 십자가를 들고 나타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수태고지(受胎告知)하는 천사의 머리 위에는 적절하게도 ‘은혜(Gratia)’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가 써져 있다.

율법의 서판을 받고 있는 모세의 아래쪽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보인다. 뱀은 뱀

의 외형을 빌려 나타난 사탄을 상징한다. 최초의 인류, 제1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원죄를 짓는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주권자이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죄다. 아담의 머리 위에는 ‘죄(Peccatum)’라는 뜻의 라틴어가 보인다.

반대편 기도하는 마리아와 천사의 아래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보인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Agnus Dei)’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반제의 속죄양과 희생양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제1아담이 ‘죄’의 상징이라면, 제2아담, 즉 예수님은 ‘속죄’의 상징이다.

아담과 하와의 뒤쪽에는 십자가에 걸린 청동뱀이 보인다. 이것은 반대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있는 십자가가 책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대비된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 T자 모양의 장대모양 십자가에 청동뱀을 올려놓았다. 여기서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뱀처럼 교활한 유혹자가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리스도의 이미지다. 이처럼 뱀은 이중적인 상징이 있으므로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명화를 볼 때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청동뱀이 부상당한 소수의 히브리민족을 구할 수는 있어도,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죄를 대신 사해주신 예수님 한 분뿐이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제1아담이 저질렀던 원죄는 속죄가 되고, 우리는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약속, ‘신약(新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사야와 요한 그리고 예수와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은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 오른쪽 아래에는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무덤도 이중의 상징을 가진다. ‘시련과 희망이 공존하는 집합소’다.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헤치고 나와 십자가 깃발을 들고 당신의 부활을 세상에 선포하신다. 흰색 바탕에 붉은 색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은 부활의 상징이다. 왼쪽 맨 아래의 해골이 들어 있는 관에는 ‘죽음(Mors)’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예수님이 나오신 관 위에는 ‘부활(Victoria Nostra)’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이유가 그것이다.

나무 아래에는 맨 몸뚱이를 한 ‘인간(Homo)’을 둘러싼 선지자 두 사람이 보인다. 왼쪽은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이고, 오른쪽은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다.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사 11:1)라고 예언한 인물이다. 이사야는 다윗 왕의 후손인 ‘평화의 왕’이 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야가 바로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라고 선포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눅 3:16)고 겸손해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눅 7:28)라며 요한을 칭찬하신 바 있다.

구약과 신약을 각각 대표하는 두 선지자가 함께 가리키는 곳이 어디일까? 이사야와 요한은 인류에게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맺어진 새 언약, 즉 신약의 상징이다.

그림을 멀리서 한번 조망해보라! 두 선지자의 모습이 그림 중앙에 가장 크게 배치되어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사야와 요한 두 선지자의 오른팔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곳을 통해 뚜렷하게 적시하는 것으로 말이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준!

“대학원에 진학할지, 유학준비를 해야 할지, 취직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진로와 비전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많이 토로하는 고민 중 하나가 ‘진로(進路)’ 또는 ‘비전(Vision)’이다. 자기 인생 전체를 이끌어갈 총체적 비전에 대한 고민일 때도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직장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인생의 다음 스텝(step)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다. 미래에 대한 고민, 진로와 비전을 고민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현재의 청년세대는 어릴 때부터 성공과 성취에 대한 많은 동기부여를 받으며 자랐다. “꿈은 크게 꿀수록 좋다”는 격려를 들으면서 은연중에 더 영향력 있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를 꿈꾼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자리(예를 들어 연예인이 되고 싶거나 SNS 팔로워를 많이 거느리고 싶거나)에 대한 동경심을 품기도 한다. 크리스천 역시 진로와 비전을 고민할 때 이러한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 세상적인 성공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특별한 분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미래 혹은 신앙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좋은 비전이라고 여긴다.

그렇다면 성경 속 인물들은 무엇을 진로와 비전의 기준으로 삼았을까?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나 다윗을 많이 거론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과 사역은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남겼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를 목표로 삼고 인생의 비전과 진로를 구하기보다 성경 인물들이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진실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았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중략)...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창 39:9-20).

비록 그 선택이 요셉을 감옥으로 이끌어도 그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윗 역시 목동 시절 양떼를 칠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나라를 세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들은 미래의 어떠한 특별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며 이상향을 성취하는 것보다 지금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방향을 선택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하는 선택을 했다.

진로와 비전을 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직장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성공보다 그곳에서 더욱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자.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당장에는 나에게 해로워 보이는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결심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한은선 목사
(SNS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흑과 백에서 벗어나 ‘긍정적 회색지대’ 를!

학생 때 매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다. 갓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먹했던 고등학교 신입생이었는데 의외로 쉽게 말을 놓고 편하게 지냈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만나면 즐겁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의기투합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내 편이라는 신뢰가 있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학교나 모임에 나가는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다. 반대로 좋은 친구가 없다는 것은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고 싶게 만드는 동기이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라면 더욱 그럴 수 있다. 친구가 특히 중요했던 시기에 마음 통하는 친구를 만났다는 것은 무척이나 든든한 배경이다. 그런데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친구,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했던 친구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로 관계가 틀어졌다. 무슨 일로 관계가 틀어졌는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먹하게 되었다. 서먹한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냈고, 결국 말문을 닫았다. 친했던 친구를 향한 모든 호감이 미움과 비호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친구의 행동이나 말이 아마도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 역동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을 것이다. 친했던 관계가 식어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고, 마음을 닫고 말문을 닫고 어색하게 지내기로 작정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다. 그 과정에서 친구의 화해 요청도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

도 미안하다”는 말을 차갑게 거절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 불편했던 관계는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청소년 시기 동안 계속 이어졌다.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끝나버렸다.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많은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단단히 닫아버리는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람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일이나 어떤 비호감적 특정 사건과 상처가 건드려지는 상대의 행동으로 마음이 순식간에 돌아서기도 한다. 친했던 친구와 관계를 깨뜨리고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던 이유를 한동안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탐색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이분법적인 인지오류가 당시 내 심리체계 안에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인지에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흑과 백, 옳고 그름, 좋은 것과 나쁜 것 등으로 구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자신을 더 깊은 고통으로 끌고 가는 역기능적 사고가 된다. 한없이 좋았던 친구는 좋음이라는 구분에 포함된 사람이다. 좋은 친구, 한 없이 좋은 내 편이라는 인식은 그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한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 그 완전성이라는 것도 상대적일 때가 많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것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극히 혐오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

좋음이라는 구분선 안에 있었던 친구가 어느 날 실망스러운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워진다. 마음에서 두 가지 구

분밖에 할 수 없으면 좋음이라는 쪽에 놓을 것인지, 아니면 나쁨이라는 쪽에 놓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친했을 때의 친구는 당연히 좋음이라는 구역에 구분지어 놓게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려움과 실망을 주는 사건을 만나면 혼란스러워진다. 좋음이라고 구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과거를 돌아보면 내에게는 중간 지역이 없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중간 지역이 없었다. 그래서 좋음이라고 구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나쁨이라고 구분 짓는 오류를 범했다. 특정 사건 이후에 그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나쁜 친구가 되었다. 이처럼 흑과 백으로 인간관계를 구분지어 인식하는 것은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되고, 자신에게도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인지적 오류로 중요했던 친구와 화해할 기회를 놓쳤다. 나쁨과 좋음의 중간에 다양한 인식의 완충지역으로 끌고 와서 다시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그때는 터득하지 못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흑과 백으로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인지적 오류에서 어느 정도 자기 객관화와 자기 탐색, 더 넓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영역을 경험하지 못한 채 결혼하기도 한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선택적으로 다시 교류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영역이 있다. 마음에 이미 싫음의 영역, 나쁨의 영역으로 상대를 구분 지었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다.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가까운 관계, 하나 된 관계다. 인지적 차원에서 본다면 ‘좋음’의 영역에 항상 놓고 싶은 사람이 배우자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배우자가 매우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다. 좋음에 있어야 할 사람을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나쁨의 영역’에 놓기도 한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싫어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쉽게 내뱉기도 한다. 관계에는 때로 좋음과 나쁨의 영역도 있지만, 어쩌면 보다 넓은 중간지대, 즉 ‘긍정적 회색지대’가 필요하다. 그래야 배우자를 더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 흑과 백의 인지적 오류에서 회복되는 사람은 배우자의 ‘긍정적 회색지대’를 더 많이 수용하게 된다.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다른 판단을 하는구나’ 등 더 여유 있게 서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를 흑백으로 구분하기보다 더욱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 결혼을 성숙으로 이끌어 가는 길이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의 행동은 ‘나쁨’이었지만, 이 모든 것까지 용서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결혼 생활에서도 본받아야 한다(요 18:25~27, 요 21: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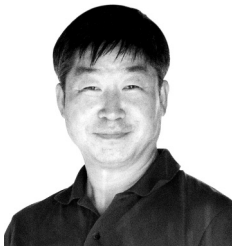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재’

오늘, 지금, 당장,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신사참배 거부한 ‘강경성결교회’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
해설사, <강화도(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젓갈로 유명한 강경은 돈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근대화의 상징인 은행들이 여럿 들어서 있었다. 강경 근대화거리를 걷다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하다. 강경 서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동쪽과 북쪽으로는 논산천, 강경천이 시내를 휘감으며 금강에 합류한다. 금강을 따라 들어온 서해바다 새우들이 이곳까지 실려와 젓갈이 되어 나라 곳곳으로 흩어졌다. 군산항으로 들어온 서양 물건들이 강경까지 운반되어 내륙 곳곳으로 팔려나갔다. 그래서 한때는 대구, 평양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내륙시장으로 흥성거렸던 곳이 강경이었다.

강경은 ㄱ자 지형을 하고 있다. 강경천과 금강이 휘도는 까닭이다. ㄱ자형 꼭지에는 작은 산봉우리가 있어서 금강이 들이치는 것을 막아준다. 이 산을 옥녀봉이라 한다. 이곳에 오르면 전망이 매우 탁월해 강경 제일 경치를 자랑한다. 일제강점기 이 산에 신사(神社)가 세워졌다.

옥녀봉 아래에 한옥 교회 한 채가 있다. (구) 강경성결교회다. 강경성결교회는 1918년 시작되었다. 이듬해 초대감독이었던 영국인 존 토머스 목사가 강경을 방문했다. 교회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1919년이면 3.1만세운동으로 온 나라가 들끓던 때였고, 강경도 만세운동이 한창이었다. 마침 수백 명이 옥녀봉에 모여 강경 시내로 행진하고 있었다. 옥녀봉 아래 교회 부지를 둘러보던 토마스 목사 일행은 만세운동에 나선 시민들과 어우러지게 되었다. 만세운동을 진압하던 일제 경찰은 토마스 목사와 일행을 만세 행렬로 착각해 연행하려 했다. 토마스 목사는 여권과 여행증명서를 보여줬

으나 경찰들은 그것을 던져버리고 무차별 구타했다. 결국 이 문제는 영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영국 정부는 5만 불의 배상을 요구했고, 일본은 배상은 하되 토마스 목사의 추방을 요구했다. 토마스 목사는 배상을 안 받아도 좋으니 추방하지 말아 달라고 영국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배상을 받았고, 토마스 목사는 추방되었다.

토마스 목사는 매 값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해 교회를 짓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그렇게 1923년 36평 한옥 예배당이 지어졌다. 교회는 출입문을 두 개 만들었고, 예배당 안에는 칸막이를 설치해 남녀칠세부동석을 수용했다. 강경성결교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 있다. 강경성결교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다.

일제는 한반도 곳곳에 신사를 세웠다. 결정적으로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을 건립해 한국 사람의 생각과 종교마저 일본화하려고 했다. 순차적으로 이를 추진하던 총독부는 통제하기 편한 공립학교에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요구했다. 공립학교에서 신사참배한 이후 일반으로 확대하고, 마지막에는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에까지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1924년 10월 11일 강경 옥녀봉 신사에 강경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신사참배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경성결교회 집사였던 김복희 교사와 주일학교 학생 57명이 이를 거부했다. 초등학교에서 그것도 공립학교에서 신사참배 거부가 일어난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신문에서 대서특필했다.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

이 사건으로 김복희 교사는 면직되었고, 학생 7명은 퇴학당했다. 일제는 부모들을 설득해 신사참배를 시킬 예정으로 학부모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우리도 조상 제사가 있는데 아이가 교회를 다닌 이후로 제사를 거부해서 때려 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행실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실해졌다. 공부도 열심히 하니 우리들은 책망할 마음이 없다”라면서 학생들을 옹호했다.

아이들이 교회 출석 이후 제사를 거부했지만, 부모의 마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았다.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 때문이었다. 가장 훌륭한 설득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다. 빛과 소금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지금, 당장,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강경성결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사참배 거부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었다.

두란노 신간

고난보다 더 깊은 은혜



<고난을 넘다>

이기용 저 | 두란노 | 15,000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하신다”(고전 10:13)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신(하나님)을 원망할 때 사용한다. 예고 없이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신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다”고 원망한다. 이 원망은 크리스천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기 전부터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두란노 신간 <고난을 넘다>의 저자 이기용 목사는 불청객 같은 고난을 보는 시선을 새롭게 한다. 고난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재정립하도록 돕는다. 저자는 “신앙은 고난을 피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길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성경 속 인물들이 만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다. 고난의 원인을 모른 채 깊은 침체에 빠진 이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도록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주저앉은 성도들, 고난을 이겨나갈 힘이 필요한 성도들,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하고 성숙을 이루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고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_ ‘교사 FEEL통’

교회학교 교사가 가져야 할 덕목



“어려운 인생 살다 보면 누구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섭섭함이 생기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상억 교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불안과 친해지라”고 조언한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불안과 더 친해지고자 다짐해야 합니다. 불안과 친해지는 것은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사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CGNTV 기독교 OTT ‘풍당’ 추천 프로그램 ‘교사 FEEL통’에서는 ‘필통교사들의 세계관’, ‘필통교사들의 소통’, ‘필통교사들의 자기관리’를 주제로 교회학교 교사가 갖춰야 할 의사소통 방식과 덕목을 깊이 있게 알려준다.

세상사는 게 팍팍하고 녹록지 않다. 어쩌면 모두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불안과 어려움이 어리다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상억 교수(장로회신대학교)는 이에 대해 “교회학교 교사와 아이가 FEEL이 통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온누리요양센터, (주)모닛과 업무협약 체결

맥스 스마트 기저귀 케어 시스템 시범 도입

온누리요양센터(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대표 송영범 장로)가 (주)모닛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6일(목) 온누리요양센터 강당에서 '맥스(MECS) 스마트 기저귀 케어 시스템' (이하 맥스) 시범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맥스는 성인 기저귀 케어 시스템이다. 노인성 질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기저귀 교체 시점을 센서가 알려준다. 어르신들의 욕창 및 요로감염 원인을 차단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주요 케어 업무 중 하나인 기저귀 교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온누리요양센터에서는 완전 외상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어르신들 일부를 대상으로 맥스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박하늘나라 원장(온누리요양센터)과 (주)모닛의 박도형 대표가 맥스(MECS) 시범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모닛 박도형 대표는 “노인 환자들을 돕는 제품과 서비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기업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주)모닛은 스마트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이다. 유·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저귀 센서를 개발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제10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10월 19~25일,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제10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가 10월 19일(수)부터 25일(화)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새 노래-나의 십자가’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크리스천 미술인

110명이 참가했다.

온누리교회 미술인선교회 아트비전사역팀에서도 작가 18명이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일선교학교 수강생 모집

10월 29일부터 매주 토 오후 7시 30분 온라인

통일선교팀에서 통일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통일선교학교는 통일의 성경적 기초, 북한과 탈북민 이해, 통일선교사역 소개 등의 주제 강의를 통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5주 동안 통일과 관련된 강의와 조 나눔을 한다.

수강신청은 구글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아이스쿨, 문자메시지로 하면 된다(상단 QR 코드 참고). 회비는 교재비 포함 2만 원.

문의: 010-4337-5927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부모반 10월 29일, 청소년반 11월 12일 개강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모반은 10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온라인, 청소년반은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도곡교육관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파워임팩트는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

히 예배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과정이다. 참가신청은 10월 28일(1차)까지 아이스쿨 및 회복사역 홈페이지(recovery.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참가신청 최종 마감은 11월 4일이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신청 학생의 부모이다.

문의: 02-793-9686

010-4548-1522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쉽게 해석해주고, 한 주 묵상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에 대한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어린이신문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실을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을 보낼 때는 ‘작품 제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낸 작품은 온누리신문에 게재하고, 주점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온누리교회 파트교역자 청빙

10월 22일 자정까지 신청

온누리교회에서 복음의 열정과 소명을 가지고 함께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는 파트교역자를 청빙한다. 모집 부서는 국내 온누리교회 차세대와 대학청년부다.

지원자격은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신학대학원 MDiv. 재학 및 졸업자, 입학예정자, 교육대학원(기독교교육) 재학 및 졸업자, 목회의 소명과 인격을 갖춘 교역자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지 다운로드), 지원분야 설교 원고 1부(3page 이내), 대학졸업증명서 스캔본, 신대원 및 기독교교육 대학원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혹은 입학허가서 스캔본, 신분증 스캔본을 10월 22일(토) 자정까지 이메일(onnurihr@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10월 25일 서류전형 결과 발표, 29일 면접, 11월 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문의: 02-3215-3233



경기A공동체, 3년 만의 가을 소풍

경기A공동체가 3년 만에 가을 소풍을 다녀왔다. 지난 10월 10일(월) 과천 서울대공원에 모인 경기A공동체는 예배, 식사, 레크레이션 등으로 성도 간 풍성한 교제를 나눴다. 조현수 목사(경기A공동체)는 “3년 만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날, 참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했다.

부채문제 해결 가이드

‘부채탈출 119’ 참가자 50명 선착순 모집

건전한 재정이 절실한 성도들을 위해 사회선교본부에서 ‘부채탈출 119’를 실시한다. ‘부채탈출 119’는 재정상담 및 법률상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재정 설계와 부채 해결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나 온누리교회 성도가 추천하

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kyaiaman@naver.com) 또는 팩스(02-6455-2644)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2636-3777

02-3215-3434



Love Sonata - 미야자키 기·도·제·목

- 10월 17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 10월 18일(화) 현지 교회와 리더십들이 새 힘을 얻고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도록
- 10월 19일(수) 담임목사와 강사들, 통역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 10월 20일(목) 모든 행사 참석자들의 마음을 열어 풍성한 열매 있도록
- 10월 21일(금) 교회세미나, 리더십포럼을 통해서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 10월 22일(토) 스태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해 최선의 준비를 하도록
- 10월 23일(주일) 날씨, 교통, 장비, 건강, 안전 등 모든 환경이 주 손길 아래 있도록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1월 22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

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 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182-9114

장로칼럼

권사칼럼

하나님께 나의 마지막 유산 바치기 운동



정상건 장로
(CGNTV 운영위원장)

CGNTV는 故 하용조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 선교에 비전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시작되었고, 100% 후원으로 움직여 온 방송이다. 나는 故 하용조 목사님에 이어 이재훈 목사님의 제안으로 CGNTV 운영위원장을 맡았고, 방송에 점점 빠져들었다. 바울 사도가 서신으로 선교했다면 지금의 선교 수단은 영상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CGNTV의 역할이 더욱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중요성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CGNTV를 후원하고 함께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나의 마지막 유산 바치기 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에서 두 가지 헌금의 모범을 말씀하셨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헌금(눅 21:3-4)과 천국의 비유(마 13:44-46)다. 나는 이 말씀들에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들의 유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역, ‘하나님께 나의 마지막 유산 바치기 운동’을 주위에 제안하고 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나의 마지막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값지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을 뵈는 때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얼굴과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또 이 사역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후손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나의 직계가족이 14명인데 손자손녀 모두 CGNTV를 후원하고 있다. 그 아이들의 신앙도 좋다. 한 아이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의료선교를 하고 싶다고 했다. 18살인 손주가 그 이야기를 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봉사하고, 후원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보며 자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CGNTV는 17년 동안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방송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기독교 OTT ‘풍당’은 기독교 복음의 백과사전 같다. 한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매일 도전하는 CGNTV 임직원들을 보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근무 환경과 급여 수준을 보면 매일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이 샘솟는다. 그래서 나는 교회나 CGNTV가 행사를 할 때 포장 걸면 ‘CGNTV, 함께! 미디어선교’라고 적힌 ‘정상건빵’을 후원하고 있다. 빵도 맛있고, CGNTV를 알리는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정상건빵 후원을 실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말씀을 하셨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구원받은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선교지에 직접 갈 수 없더라도 CGNTV를 통해 ‘미디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오늘도 도전하고 있는 CGNTV 임직원들을 위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작은 정성과 기도가 절실하다. CGNTV의 도전에는 한계가 없고, 그 도전을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



김정희 권사
(일본어예배부)

2004년부터 동경온누리 교회에 출석했다. 2007년 동경에서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야호!’를 외쳤다. 평소 일본 선교에 뜻이 있어서 아이 친구나 학부모들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일본의 영적 분위기 때문인지 전도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동경 러브소

나타 집회는 내가 담대하게 주변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정말 기뻐다. 동경 러브소나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이때를 위하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일본의 귀한 영혼들의 구원을 향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솟구쳤다.

동경 러브소나타는 예상인원을 2만 여명으로 잡은 대규모 집회였다. 그 큰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공연장이 과연 가득 채워질지 내심 걱정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뿐이었기에 매일 기도할 뿐이었다. 성도들과 함께 전단지들을 들고 나간 첫날, 내 생각은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 보란 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수줍고 낮가림 심한 내가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유창한 말과 태도로 동경 러브소나타 집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날은 전철을 타고 가다가 꼭 말을 건네고픈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기 내 전단지를 주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일본인 크리스천이거나 교회를 다녔던 한국인 등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다. 동경 러브소나타 집회를 준비하는 몇 개월 동안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해두신 목마른 영혼들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다. 동경 사이타마 슈퍼아레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고, 동경 러브소나타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막을

랐다.

2011년, 도쿄에 살던 나는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엄청난 지진의 충격을 직접 몸으로 겪고, 쓰나미가 몰려왔던 후쿠시마에 사는 지인과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큰 충격을 받은 나는 지진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바다를 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런 이유로 3년 동안 러브소나타 집회 참석을 안 하다가 2014년에야 시모노세기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석했다. 관장을 거라는 내 예상과는 달리 그곳에서 바다를 마주했더니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다.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다.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깨달았다. 하나님이 일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이토록 많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절박함이 나를 찾아왔다. 그날의 기도가 지금까지 일본의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멈추지 않도록 나를 이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미야자키 러브소나타 집회가 현장에서 열린다. 나는 동경 러브소나타 집회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을 모으시리라 확신한다. 러브소나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게 믿음이 생겼다. 러브소나타는 결코 일본인 전도로 끝나지 않고 북한, 중국, 이스라엘 선교로 확장되리라는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러브소나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라는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러브소나타가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의 기도를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울 뿐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에 일본에 뿌려진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피와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고, 추수의 계절이 오도록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처럼!



박성천 목사
(관악금천공동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본질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 있다.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질문을 하셨을까? 정말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다. 인간들이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이다.

“...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창 3:8-9).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도함이다. 아담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부름이다.

“...사래가 하갈을 확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와 사래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창 16:6-8).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렘 1: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눅 9:20).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6).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등의 질문들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찾아와 질문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창 32:27).

설마 천사가 정말 야곱의 이름과 상황을 몰라서 묻는 것이었을까? 부유함과 성공은 이뤘지만,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질문한 것은 “너는 네가 정말 누구인지 아니냐?”라는 뜻이 담겨있는 물음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 그 상황에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창 32:24).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다.

“이제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창 32:28).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다.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서 빼앗거나 꺾으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저주신 것이며, 붙들어주신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야곱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하다. 사람을 붙들고,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있다. 하나님을 꼭 붙들어서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영광에 이르는 소망

저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을 중지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피조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제 역할 하지 못합니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죽음에 처한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도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에 죽음의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자연이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썩어짐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낙엽을 두면 썩어서 비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다시 사용하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피조세계는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기까지 고대합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속히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고통스러워하기까지 탄식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22절).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라는 것은 피조세계의 탄식은 우주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탄식하며 고통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구원의 위대함은 그 범위가 우주적인 것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구속까지 입는 것처럼, 인간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회복됩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광에 이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탄식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했습니다. 피조세계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입니다.

다. 피조세계의 탄식은 소망적인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단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탄생이라는 희망이 있는 것처럼, 피조세계의 탄식은 절망적 탄식이 아니라 언젠가 소망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는 탄식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소망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23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음에 못 알아봤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처음에는 모르다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럽게 된 몸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을 때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을 때 제자들이 선뜻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것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란 우리에게 성령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이들은 더욱 간절히 탄식하며 소망합니다. 피조세계도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탄식이고, 영광에 이르는 소망

의 탄식입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탄식합니다. 모두 영광에 이르는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탄식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에 탄식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즐거움만을 찾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오히려 탄식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24절).

참으로 구원받은 자, 의롭게 된 자, 거룩함을 이루는 자들은 영광에 이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참된 신앙의 척도입니다. 거짓 신앙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영광스럽게 될 구원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주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있어야 할 것이 날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 407장 1절이 이 내용으로 작사된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삶의 능력이 되고,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순회 칼럼’



김창수 선교사
(러시아)

러시아는 영토 면적이 17,098,200km²이고, 동서 간에 11시간 시차가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삶〉 덕분에 다른 사역자들보다 많은 러시아 땅을 밟으면서 사역했을 것 같다. 러시아 동쪽 끝 사할린에 위치한 교회에서부터 서쪽 끝 유럽에 있는 칼리닌그라드의 교회와 북극권 마지막 기차역이 있는 보루쿠타의 교회에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삶〉이 전해졌다.

10여 년 전 CGNTV 아웃리치팀과 모스크바에서 1,660km가 떨어진 ‘구바하’라는 시골의 마약중독센터에 함께 간 적이 있다. 구바하 마약중독센터는 내가 매년 1~2차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으로 친밀함을 누리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

다. 로만 형제가 당시 마약중독센터의 리더로 섬겼는데 그의 고백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없는 사람들처럼 여겼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만 형제는 AIDS 합병증으로 그 인터뷰 이후 1년 만에 주님의 품으로 갔다. 로만 형제가 지금 이 땅에 없지만, 구바하 마약중독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었는지 모른다. 제2의 로만, 제3의 로만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산골까지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 많은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사 52:7).

참 좋은 소식,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오늘도 이 좋은 소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들이 품고 나아가는 그 소식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그 소식은 소망을 주고, 인생을 변화시키며, 생명을 살린다. 그 소식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게 한다.

사실 성경은 ‘너무나 반갑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다. 도리어 우리를 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안다.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클수록 그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그들이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늘 깨닫는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강한 거부감에 좌절하기도 한다. 그럴수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땅에 사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되고, 기쁜 소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그 덕분에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어

갈 수 있다.

어떤 러시아 사람들은 ‘왜? 러시아에 와서 서방의 하나님을 전하는가?’라고 반발하기도 한다. 때로 경찰에게 검문을 당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고 당당히 말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 복된 소식이며,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답이 되신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복되고, 기쁜 소식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참 복된 분들이며, 참 좋은 소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평화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 러시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기쁜 소식을 위해 산을 넘어 달려가는 주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담: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일 첫주 군포 셀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페인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뵘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방 11:00 705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예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매주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ISB서울빌딩 2층(용산구 한강대로 363-2) 문의: 010-8964-5275 CMN 서울역노숙인 진로팀 모집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삼촌은친구 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제14회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 대회 참가선수 및 각 캠퍼스회원모집 일시: 10월 29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장소: 국회의사당 둔치 운동장 대상: 온누리교회 성도 및 가족 문의:서빙고총무- 오명석 010-6470-7131 양재총무- 이병진 010-6891-6665 수원총무- 박민규 010-3753-4546 남양주팀장- 권오민 010-5535-0119 대전팀장- 김성동 010-5454-9338 부천총무- 황근배 010-4727-5258 드림어게인스쿨 일시: 10월 22일~11월 19일(매주 토 오후 4 시 30분~8시) 신청: 아이스쿨 회비: 6만 원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통일선교학교 일시: 10월 29일~11월 26일(매주 토 오후 7 시 30분~9시) 신청: 아이스쿨 회비: 2만 원 문의: 010-4337-5927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이 후원 1. 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학습 지는 받지 않습니다) 2. 운동화(사이즈 190-230) 3. 아이들의 공책, 필기 도구 4. 장애인쓰고가지고있는수건(욕실타월) 보내실 곳: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570-7469) 일대일양육자반 박동현 장로반 일시: 11월 5일~23년 2월 25일(매주 토 오전 10~12시 30분) 신청: 아이스쿨 문의: 02-570-7349
---	---	---	---	---

부 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드림씨드,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열린새신자예배 2: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기도회 매주 수 오후 8:0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초1~2) 9:00, 11:30 사랑홀 / 초등부(초3~4) 9:00, 11:30 경찬홀 / 소년부(초5~6)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차세대 오전 11:30 믿음홀

대 전

O42. 825. 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 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 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 565. 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 (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 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방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 홀 / 유년부 9:00 2층 꿈방홀 / 초등부 11:30 2층 꿈방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방홀 / 중등 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 택

O31. 651. 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14:2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 천

O32. 437.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10: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 동

O2. 475. 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 (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양 지

O31. 331. 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에펠렐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이성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53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앨버민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오를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타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8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3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 -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당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박철웅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병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걸 김상수 김승완
김승훈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용수 김중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완 김현실 김홍주
노규식 노지형 노희태 도육환
럼문홍 문영재 문정원 박근번
박시형 박성A 박성B 박성천
박철중 박형준 배현삼 백인규
변대섭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영준 유승현 유진하
윤마리아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서진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성진 정승철
정현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보 조운국 조현수
조호영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승준 최중현 최혁중
최대식 하성희 하정훈 한은선
한화수 한종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한국 신현민 송동주
오현교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주하늘 진신시 카와무라 요사키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구혜미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세환
김은하 김중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 한미애 마주마루
박씨마 박영규 백승현 비 켈
서영철 성우애는 사가르
에릭마이클스폴즈 윌리엄 이성광
이세영 이진이 이진희 윤준석
남지연 전 진 제인랑 차제이미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하람 강은수 강지영 고병석
김반석 김반석B 김세미 김수영
김영신 김의연 김종균 김주영
김정웅 김승걸 김상수 김승완
김진성 김진희 김태광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해 민근홍
김종민 김용수 김중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완 김현실 김홍주
노규식 노지형 노희태 도육환
럼문홍 문영재 문정원 박근번
박시형 박성A 박성B 박성천
박철중 박형준 배현삼 백인규
변대섭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영준 유승현 유진하
윤마리아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서진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성진 정승철
정현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보 조운국 조현수
조호영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승준 최중현 최혁중
최대식 하성희 하정훈 한은선
한화수 한종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현석 구재영 권득환 권영석
권용성 권철중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삼 김석인 김선래 김수광
김성목 김성순 김상인 김수영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원규 김이근 김인화 김장철
김종건 김중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배 박상승 박석봉
박성근 박영대 박웅국 박종훈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배중수
박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장섭
순한기 송만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조
신만인 신영각 신우원 신현중
심상달 심재욱 심창규 심춘보
안국영 안성연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정호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훈 유원영 유재천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성 윤영오
윤형주 이강범 이근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영경 이용하
이우근 이광대 이창로 이호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절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도영
정병규 정보민 정순풍 정영열
정봉원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자중 정희원 조창진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구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진수 최진성
최창규 최정수 최충길 최희영
판무곡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곡식
함선조 허형석 홍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병식 홍중철 황영욱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규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철호
강태욱 고아라 고영주 광범철
곽진석 광희준 권순형 권오습
권오석 권용환 금세중 김경동
김경하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연

김두진 김만수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욱 김상갑 김상철 김진호
김성균 김성중 김성철 김성환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환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영 김재욱 김재일 김준민
김중훈 김중국 김준호 김지현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철주
김지홍 김창석 김현주 김현경
김형식 김형중 김형중 김환선
김하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진 남명현 남상길
남상욱 남윤창 남정진 남주인
나희훈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환 문성찬 문중호 문현수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태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욱 박성규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환
박하영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종현 박지수 박지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홍균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열 서성현 서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경래 손태우
송동섭 송중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한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화철 신현수 심길성 심효우
심화돈 안동혁 이상현 이상식
양 웅 양준홍 양춘경 양중식
오 명 오범표 오성복 오성훈
오승택 오이식 웅내문 우승근
원종호 유병진 유봉국 유재홍
유 형 유석우 유석주 유수민
유영과 윤원희 이경호 이준현
이광순 이규현 이기중 이길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백용
이병준 이봉익 이상도 이상용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종철 이진택 이태광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현규 이상범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모 장정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영규
정영기 정운오 정원만 정영화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태경
정학영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창구 조희동 주재환
진종구 차준한 최도성 최민철
최봉립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완우 최현내
최희정 최호림 하성기 하주현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왕식
한정철 한 경 하광수 허복만
하영남 하영한 하필우 홍길진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선
홍해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김성규 박성호 박성호 박순길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진 지성한
채수삼 최창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해태환 박지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준환 추교명 함지연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열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지현 김은혜 김경경 김경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재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영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순 조익현
전병근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유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지훈 김현주 김현정
김지훈 김효종 남궁진 남영민
남예슬 노성희 박아령 박요철
문희정 박이영 박요철 박요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호진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희준 오우경
유종우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주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애은
이지원 이혜진 임복남 임원희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태 천은진 최영균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김성규 박성호 박성호 박순길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진 지성한
채수삼 최창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해태환 박지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준환 추교명 함지연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열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지현 김은혜 김경경 김경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재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영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순 조익현
전병근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유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박신웅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루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타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당목사

김현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열 이준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병성
김상훈 김인숙 김성연 김성진
김정운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김창호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배성우 변범식 서성관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신영ભ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정호 이미령 이성은 이성원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광민
임봉순 장이삭 장재홍 전상영
전종현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전도사

강요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명복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우림
박종구 박지혜 사재욱 설상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소천

10/7(금) 도곡공동체 신일숙 성도 시무상 고 이돈우

10/7(금) 광명 윤종현 성도 부친상 고 윤수혜

10/9(주일) 양천 황윤경 성도 모친상 고 홍성인

10/9(주일) 마포 이요한 성도 모친상 고 관재경

10/10(월) 성동광진 서경주 권사 모친상 고 박문자

10/11(화) 여의도 원혜경 권사 부친상, 김지홍 장로 병부상

고 원용대

10/11(화) 가정사역 김광석 성도 부친상 고 김병복

10/12(수) 동작 이동연 권사 부친상 고 이강호

결혼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을

강원호, 박숙희(광주월광교회 권사)의 아들

강민성(온누리교회)

최종완, 김효진(안양일심교회 집사, 집사)의 딸

최보배(온누리교회)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을

정윤석, 김지애(노원창일교회 장로, 권사) 아들

정민영(온누리교회)

김태복, 남금성의 딸 김솔아(온누리교회)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가족센터 '오롯이가족' 회원 모집

대상: 서초구 및 인근지역 한부모 및 미성년 부모 가족

내용: 회원가입 후, 부모자녀관계향상 문화 프로그램 및 부

모교육 진행(개설시 별도 신청)

기간: 모집 연중 상시

문의: 교육문화팀(070-7477-2612)

서초구립양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중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

관리 봉사활동 진행

시간: 11:20~13:30

문의: 관현우 사회복지사(02-3474-60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장은정 팀장(070-4340-2610)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새로이 5기 참여자모집

내용: 인생설계교육, 커뮤니티 활동지원

대상: 서초구 거주 만55세 이상

모집: 8월 28일까지

문의: 김다혜 사회복지사(02-6853-7134)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www.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한계없는 선교 함께하는 후원

한계없는 선교

경험의 한계를 넘다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킹>

“1천여 명이 참가한 기독교 최초 역대급 규모의 퀴즈 쇼이다 보니 참고할만한 자료가 부족했고, 규모 대비 제작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힘들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한계를 하나씩 극복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이블킹 제작 PD

사역의 한계를 넘다



풍당교회학교 프로젝트

“사모와 단둘이서 사역도 하고 교회학교도 돌보다 보니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 양육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는데, ‘풍당교회학교’에 선정된 덕분에 아이들에게 좋은 콘텐츠로 양육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거제광림교회 박동일 전도사

CGNTV 와 함께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신규후원QR



중액후원QR

CGNTV

함께!
미디어선교